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저자 진은영

철학사의

‘하이퍼텍스트’ 칸트,

“감히,

칸트의 용기를 배우려 하라”

시작은 칸트였다. 냉담한 정인(情人)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는 무엇은 존재하는 법, 철학에 있어 그것은 칸트였다. 길고 긴 미궁의 철학사를 탐사하다 주저앉아 버렸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 칸트를 만나 보라. 철학사를 횡단할 용기와 근력을 얻게 될 것이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진은영(35) 씨는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이하 《순수이성비판, 이성...》)를 통해 ‘철학의 시작은 칸트’라는 명제를 명쾌하고 산뜻하게 증명한다. 진씨는 “칸트를 견뎌낼 수 있다면 어떤 철학의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다. 칸트에게 매혹된다는 것은 철학에 매혹된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밝힌다.

“시를 쓰는 철학도라 칸트보다는 니체나 베르그송같이 시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철학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니체 철학을 전공하다보니 그에게 영향을 받은 푸코와 들뢰즈의 저작을 자연 읽게 되었지요. ‘너 칸트가 얼마나 멋진 철학자인 줄 알아’ 하는 푸코의 꼬임, 칸트의 세 비판서에 대한 들뢰즈의 멋진 주석을 읽고



칸트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단조로운 생활패턴을 엄격히 즐긴 칸트는 사실 매력이라고는 없는 위인이다. 《순수이성비판, 이성...》이 칸트의 매력을 발굴, 그것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매혹된 영혼에게 저항이 있을 수 없다”는 진씨의 제1법칙 때문이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칸트, 그러나 그 곁에 우리를 앉혀 끝까지 주목케 하는 진씨의 솜씨는 특별하다. 진씨는 “고루하고 답답한 위인이었지만, 칸트의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쳤다”며 ‘내면의 드라마’를 주목하라고 한다. 내면의 폭풍 속에는 어떤 위대함이 자리나고 있었으니, 칸트 선일곱 살의 철학적 대작《순수이성비판》이 그것이다. 비범을 숨긴 평범, 간과당하지 않겠다는 칸트의 제스처!

“《순수이성비판》을 독파한 독일과 외국의 지성들은 칸트에게 매료되었지요. 보들레르의 시 가운데 ‘내게 천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추억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순수이성비판》만큼 그것에 잘 어울리는 것도 없습니다. 220년이 조금 못 된 책이지만 천년을 살아남은 고전들에 비견할 만한 사유의 오래된 힘이 있지요. 그러나 《순수이성비판》은 당대 철학자들이 고개를 절레 흔들었던 난해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칸트의 친구조차도 순전히 상형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으며 유감을 표했지요.”

진씨는 《순수이성비판, 이성...》에서 ‘상형문자로 이루어진 것 같은’ 《순수이성비판》을 거침없이 독파한다. 선형철학,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감성과 이성, 직관과 개념, 선형적 변증론, 이율배반 등 《순수이성비판》의 핵심개념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전체 맥락을 이어가는 진씨의 노력은 분투 이상이다. 많은 이미지자료를 준비해 그것들을 핵심 개념에 접목시킨 기지 또한 압권이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베토벤 프리체〉를 내놓고서는 지성을 타락시켜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분류된 ‘감성’을 설명하며, 영화 〈매트릭스〉를 내놓고서는 인간 두뇌에 심어진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계를 지각한다는 ‘선형적 범주’를 설명한다.

“《순수이성비판》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갖는 지점이 있어 그들 해석에 누를 끼치지 않고 쉽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 조금 힘들었지요. 칸트를 모르면 근대적 사유와 탈근대적 사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칸트철학의 구도에 대해 맵핑(mapping)이 되어 있어야만 현대의 철학적 논의로 들어갈 수 있지요.”

책의 제목인 ‘이성을 범정에 세우다’는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의 모든 분쟁에 대한 참된 범정이 《순수이성비판》이라 말하고 있으며, 칸트를 극복하려는 철학자들이 《순수이성비판》의 진위를 따지려 그것을 범정에 세워놓고 있다. 오늘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 이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통한다. “감히 알려고 하라”, 계몽에 빛을 내리는 칸트의 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의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불량배의 협박과 같은 강대국의 논리, 자본의 논리 등에 굴복하면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성숙의 상태에 도달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그 시대 최고 지적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시대가 직면한 난점들을 직시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새로운 사유법을 창안한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무엇보다 칸트의 용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진씨는 자신의 칸트 읽기가 “푸코와 들뢰즈에 대한 관심으로 흠뻑 젖은 것”임을 밝힌다. 들뢰즈의 《칸트의 비판철학》을 통해 칸트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 마지막장 ‘칸트와 그의 멋진 친구들’은 진씨만의 칸트 읽기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진씨는 푸코와 들뢰즈를 통해 칸트를 볼 때, 사회변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말한다. “변증법이 폐기처분되며 변혁의 의지가 쓰러진 오늘, 새로운 비판적 의식과 변화에 대한 환기를 칸트에게서 얻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는 89학번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마지막 구좌파세대인 셈이지요. 사회주의권이 거둬 몰락하자 주변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습니. 변증법이 문제였고 변혁에 대한 희망도 물건너 갔다고 말이지요. 변증법이 끝났다 하더라도 비판과 변혁은 가능하다는 걸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푸코와 들뢰즈가 서치라이트를 비춘 칸트에게 그 힘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런 검토의 작업에 불러들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씨의 의미까지 더하자면, 칸트는 철학사의 여러 입구와 여러 의미를 함께 가진 완벽한 하이퍼텍스트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로크, 흄, 헤겔, 마르크스, 니체, 푸코, 들뢰즈로 통하는 수십 개의 문을 가진 칸트. “칸트에게 매혹된다는 것은 철학에 매혹된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진씨의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다.

진씨는 2000년 등단해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문학과 지성사, 2003)이라는 시집을 낸 전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시인과 철학자 중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물음에 진씨는 흔쾌히 시인이 더 좋단다. 위대한 시인이 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철학과를 선택했다고 하니, 철학이란 이름에 미련있나 묻는 것은 우문이 될 것이다.

진씨는 유명 철학자들의 사유를 이해하는 것만이 철학을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선택논리를 강요당하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하기란다. 오늘 왜 철학을 해야 하는가, 궁금했던 우리들에게 진씨의 말은 울림이 깊다. ☞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